

치과계의 앞서가는 벤처기업 에버인넷

글 / 프리랜서 이재화 (부산 이재화 치과의원장)

에버인넷의
창조적 파괴가
컴퓨터를 통해
치과계의 지식변화 및
혁신을 이루기를
바란다

요 즘 벤처기업이 새로운 창업형태로 각광을 받고 있고, 세계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.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말 현재 약 1천7백40여개의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다.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에버인넷으로 인해 치과계에서도 아주 가까운 애기가 되고 있다.

창업은 파괴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던가? 경제학자 슈페터도 기업가 정신의 원동력인 기술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. 에버인넷의 창조적 파괴가 컴퓨터를 통해 치과계의 지식변화 및 혁신을 이루기를 바란다.

에버인넷은 실리콘밸리 거장을 연상시켜

기 자는 부산 서대신동의 한 조그만 지하공간을 방문하였다. 그 곳에는 방학을 맞이한 치대 학생들이 8개의 펜티엄과 스캐너, 프린터 등 주변기기들을 움직이고,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.

그들은 저녁식사 시간조차 잊은 듯 밤 9시가 넘어서야 선배 치과의사들의 강압(?)에 못이겨 식당으로 끌려갔다. 에버인넷의 뿌리는 여기에 있었다. 마치 실리콘밸리의 거장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다.

그들은 부산치과대학내 컴퓨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연구회 회원들이었다. 멀티미디어 연구회란 작년에 부산치과대학내 치과대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이른다. 이 동아리 회원들은 치과계의 구강보건교육용 자료의 미비한 점과 구강보건지식의 홍보부족을 인식하고, 미래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에 함께 뜻을 모아 '함께하는 치과'라는 구강보건 교육용 CD Title 제작에 들어 갔었다.

'함께하는 치과'는 상당히 진행되었고 그 취지에 함께하는 엔젤들(벤처기업에 투자한 선배 치과의사들)이 가세하여 에버인넷이란 명칭의 새로운 벤처기업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.

창업자, 아이디어, 자원의 창업3요소 고루 갖춰

에 버인넷은 ever information network의 글자들을 조합하여 얻어진 명칭이라고 한다. 창업을 하는데는 창업자, 아이디어, 자원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. 창업자와 좋은 아이디어는 창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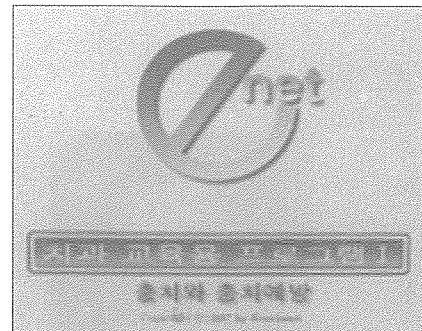
특히 아이디어는 기술이나 서비스차원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. 이런 점에서 비교적 에버인넷은 창업의 3요소를 잘 갖추고 있었다. 그러나, 아직 우리 치과의원들의 사정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것 같다.

에버인넷에서는 이번 6·9제 행사때 참석 회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CD Rom조차 갖추지 아니한 치과의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. 우리들은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. 펜이 점차 키보드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문서들조차 모니터에 흡수되는 컴퓨터 문명시대에 치과의사들도 동참하여야 한다. 에버인넷은 그들의 동참을 유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.

구강보건교육과 홍보에도 남다른 관심 보여

또 한 에버인넷은 전국의 초등학교에 구강보건교육용 CD Title '함께하는 치과'를 배포할 계획이다. 기성 기업들조차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대에 이들의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.

미래치과의원(051-633-2272) 원장이면서, 에버인넷(051-244-9106)의 회장인 조인희씨는 이러한 구강보건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, 전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여러 CD Title 제작 및 Network 사업에 대한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. 아울러 그는 다른 모임의 뜻있는 여러 치과의사들과 정보교환 및 공유로 치과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에버인넷의 성숙을 도모하기를 바랐다.



에버인넷이 직접 작업한 프로그램



에버인넷의 구성원들. 마치 실리콘밸리의 거장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.